

발행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정순택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 입당송 | 시편 81(80),17

내 백성에게 나는 기름진 참밀을 먹이고, 바위틈의 석청으로 배부르게 하였노라.

## 제1독서 | 창세 14,18-20

## 화답송 | 시편 110(109),1.2.3.4(◎ 4ㄴㄷ)

◎ 멜키체덱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 주님께서 내 주께 이르셨나이다.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

○ 주님이 당신 권능의 왕홀을 시온에서 뻗치시리이다. “너의 원수들을 다스려라.” ◎

○ 네 권능의 날에, 주권이 너와 함께하리라. 거룩한 빛, 새벽 품에서, 나는 너를 낳았노라. ◎

○ 주님은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않으시리이다. “멜키체덱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

## 제2독서 | 1코린 11,23-26

## 부속가 | <성체 송가 21-24>

천사의빵 길손음식 자녀들의 참된음식 개에게는 주지마라.  
이사악과 파스카양 선조들이 먹은만나 이성사의 예표로다.  
참된음식 착한목자 주 예수님 저희에게 크신자비 베푸소서.  
저희먹여 기르시고 생명의땅 이끄시어 영생행복 보이소서.  
전지전능 주 예수님 이세상에 죽을인생 저세상에 들이시어,  
하늘시민 되게하고 주님밥상 함께앉는 상속자로 만드소서.

## 복음환호송 | 요한 6,51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 복음 | 루카 9,11ㄴ-17

## 영성체송 | 요한 6,56 참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리라.



## 하느님을 닮아 갑니다

김한수 토마스 신부 | 종로성당 주임

‘하느님이셨던 그분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하느님처럼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Athanasius, Against the Arians, Discourse I, par. 39) 아리우스 이단에 대한 아타나시오 성인의 논증 가운데서 발췌한 짧은 문장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신 육화의 신비와 십자가 위 그리스도의 희생에 담긴 깊은 의미를 간결하게 전해 줍니다. 하느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당신 백성이 당신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신 하느님의 바람이 그 신비에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는 전해 줍니다. 한처음에 사람은 하느님의 모습(Imago Dei)을 닮아 창조되었습니다.(창세 1.27 참조)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그 본래의 모습을 잃었습니다. 자신 안에 깃든 하느님의 모습을 훼손하였습니다. 사람은 잃어버린 본래의 모습을 스스로의 힘으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하느님 모습을 닮은 본래의 모습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람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이 되신 하느님께서서는 사람이 당신의 모습을 닮은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당신의 모든 것을 비워 내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워 놓은 하느님의 내놓음(케노시스, κένωσις)은 우리가 다시 하느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함(테오시스, θεοσις)이었습니다. 강생의 신비와 십자가의 희생에는 그렇게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랑은 당신 백성에게 변화를 안겨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잃었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서는 빵과 포도주의 형상을 통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십니다. 당신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들이 당신을 닮고, 당신과 함께 변화되고, 당신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을 온전히 선사해 주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오늘도 내일도 당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신 백성에게 다가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매일의 성체성사를 통해 당신의 모든 것을 비워 한없이 내어 주시는 하느님을 만납니다. 우리의 하느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은, 한없이 당신을 내어 주시는 그런 하느님,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시는 그런 주님을 기념하는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수난 전날 만찬상에서 빵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줄 내 몸이다.”라고 하신 주님의 육성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귀에 들려 옵니다. 주님의 귀한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는 이제 압니다. 성체와 성혈을 받아 모심으로써 우리가 당신을 닮아 가고 있음을. “보시니 좋았다.” 하신 하느님의 모습을 조금씩 회복해 나가고 있음을. 그렇게 하느님을 닮아 가는 이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루카 9.13) 모든 것을 내어 주신 주님을 닮은 이들은 그렇게 주님께서 스스로를 내어 주신 것처럼 자신을 내어 주며 주님을 닮아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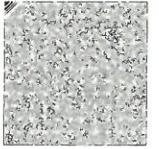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1코린 11,24)**

나의 행동이 곧 그리스도의 손이요, 발걸음이요, 말씀입니다. 그를 기억하며 그의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는 길이며 주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유별남 레오폴도 | 가톨릭사진가회



김혜영 사비나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 함께 맞는 비

함께 한다는 것은 우산을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빛(프란치스코)이 떠난 후 친구, 동료에게서 한빛이 비정규직 등 약자와 소외된 이웃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청년이면 누구나 고민했을 아름다운 삶이지만, 선하고 평범하게 살아가고자 했던 한빛 같은 청년에게 이 사회가 그만큼 절망적인 것이 저를 더 처절하게 했습니다.

그만큼 세상에는 애도조차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산재(산업 재해)·재난 참사 유가족들입니다.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을 잃은 고통을 보듬지도 못한 채 죽음의 진실 규명을 위해 생계와 일상을 버리고 외롭고 힘겹게 싸워야 합니다. 아울러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 사회적, 제도적 구조 개선을 외치고,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외면하면 매일 7~8명씩 더 이상 퇴근하지 못하게 되는 현실은 바뀌지 않음을 호소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비를 맞아 주었고 집중해주었습니다. '왜?'라고 질문했습니다. '태안에서, 평택항에서 청년 노동자가 왜 죽었지?' '특성화고 학생이 왜 실습 중에 사망했지?' '한빛은 왜?' '차별금지법이나 비정규직 문제는 왜 계속 얘기되지?' 하고 질문하며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할지 끝없이 묻고, 안전한 세상과 존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답을 함께 찾았습니다. 그 부축의 힘으로 '다시는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위한 산재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이 만들어졌고, 비록 내 가족은 죽었지만 그 슬픔을 넘어 다시는 죽음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피해자 운동에 주체적으로 나설 수 있었습니다.

교구 노동사목위원회에서도 지난 4월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 미사로, 5월 '산재 유가족 결의로'로 유가족을 위로하고 함께해주었습니다. '하느님을 닮은 인간은 모든 것 위에 있다'는 복음 말씀은 '자본보다 인간', '이윤보다 생명'이라

는 상식을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온몸과 마음을 다해 부축해주는 아름다운 사람도 만났습니다. 흑산도 어부는 힘들게 수확한 해산물을 판매할 때마다 수익금의 일부를 톡 떼어 후원합니다. 반짝반짝 등대가 될 수 있어 기쁘다는 그의 나눔의 삶은 큰 응원이 됩니다. 불광동 작은 서점 <한평책방>에서 열렸던 '괜찮으시다면 한빛을 밝혀주시겠어요?'에서는 도서 <네가 여기에 빛을 몰고 왔다>를 읽는 만큼 세상이 따뜻해진다는 믿음으로 책이 판매될 때마다 촛불을 밝혔습니다. 가톨릭 신자인 책방지기가 성모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자신만의 예식이라고 했을 때 한 번도 이런 나만의 전례를 해 본 적이 없던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175개의 촛불이 켜지는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내내 무모한 일이라고 의심했었습니다. 나보다 더 상대적인 약자에게 손 내밀고, 귀를 기울이고, 주어진 시간을 그들에게 배려하기 위해 쓸 때, 부축이 또 다른 부축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때 순간순간 예수성심의 신비를 느끼며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에 울컥합니다.

오늘도 함께 비 맞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껏 묵상



산재 유가족  
사랑의 손길은 모든  
네를 불러 모으셨다

류상애 아베스 수녀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Lk 9.17



예수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가톨릭 신학 21

##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까요?

조한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그리스도’(Christus, Χριστός)란 단어 뜻은 ‘기름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경우는 하느님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선택된 경우인데, 왕, 사제, 예언자 등에 해당합니다. 사무엘기 상권 16장을 보면, 하느님 선택으로 사무엘이 어린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Jesus)란 단어 뜻은 구약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나 예언자 호세아와 어원이 비슷하고, ‘구원’이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이분에 대한 칭호입니다. 마리아의 아들로 나자렛에서 자란 예수라는 사람을 나중에 그리스도, 즉 메시아, 구세주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랴 할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직접 뽑아 세운 12사도 중 한 명이었고, 가장 사랑받던 제자라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다른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실 만큼 신뢰가 두둑했던 제자입니다.(요한 19,26-27 참조) 요한복음은 주님이자 친구였던 예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요한복음은 총 21장인데, 21장은 부활 이후의 기록이고, 아마도 요한이 쓴 내용이 아니라 후대에 첨가된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면 요한이 쓴 내용은 20장까지인데, 요한은 마지막 구절인 20,31에는 복음서를 쓴 목적에 대해 기록합니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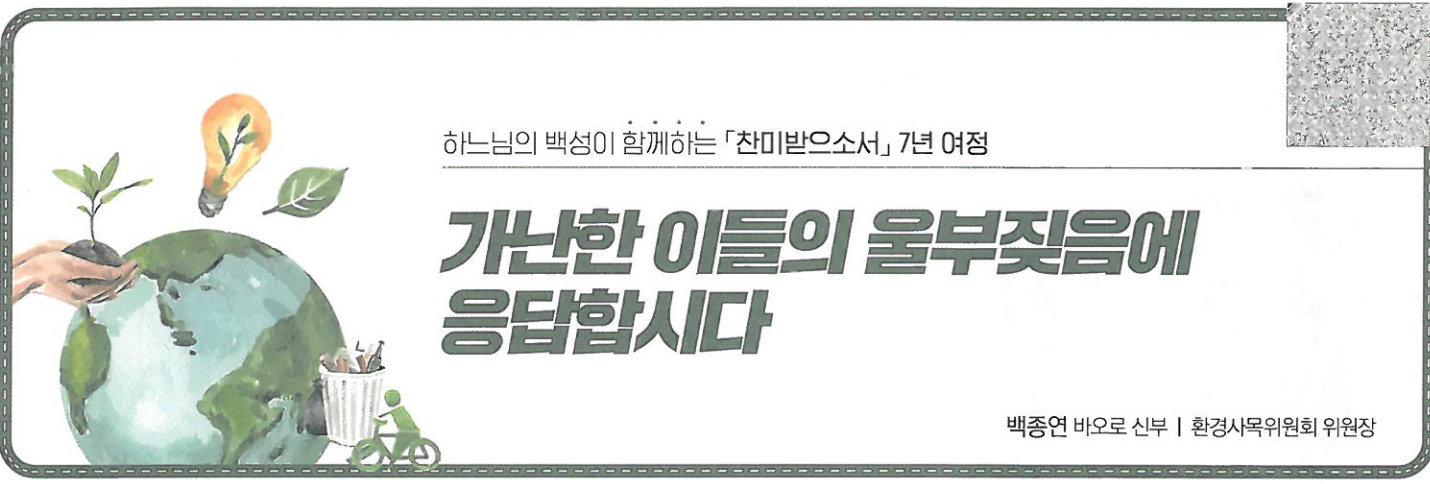
요한복음은 ‘말씀’에 대한 이해와 강조가 중심입니다.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요한 1,1)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니 세상이 시작되고, 낮과 밤이 생겼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세상이 시작되고,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하시는 하느님이신데, 요한은 그 ‘말씀(Logos)’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분’(요한 1,14 참조)을 예수님이라 증언합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신 후 새로운 세상이 시작됩니다.

왜 하느님의 말씀은 사람이 되셨을까요? 한 마디로 인간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의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참 행복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불완전하고 고통 가득한 인간 삶 안에서 참된 행복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요한 14,6) 예수님은 하느님께 가는 길, 구원의 길입니다. ‘길’을 깨우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따라가는 것이고, 이 길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 행복의 길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에게 인간다운 삶의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결국 이 길이 옳다고 믿고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이 살면서 겪는 모든 문제에 대해 때론 말로, 때론 삶으로 직접 올바른 답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가신 길을 잘 따라오라고 초대하고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삶에 지치고 힘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하느님의 백성이 함께하는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에 응답합시다

백종연 바오로 신부 | 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교회는 가난한 이들을 돌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개별적인 돌봄을 넘어서 필요한 구조를 이 사회가 만들도록 힘을 보태왔습니다. 현재 교회가 견고 있는 '찬미받으소서 여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도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입니다. 생태계 파괴와 기후 위기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가난한 이들이 겪는 고통이 점점 커지고 있기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필요한 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겠습니다.

“가장 가난한 이들이 모든 환경 훼손의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찬미받으소서」 48항)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공동의 집 지구 곳곳에서 깨끗한 물을 얻기가 힘든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오염된 공기와 땅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의 영향 등으로 비싸진 식량 가격은 가난한 이들에게 더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가 점점 더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이고 있습니다. 한편, 여러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전후로 거의 10억 명에 달하는 이들이 기후 변화로 인해 더 세력이 커진 태풍, 홍수, 가뭄 등으로 큰 피해를 볼 것이며, 자국의 경계 안에서 고향을 떠나 이주해야 하는 사람들도 1억 5천만여 명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들 대부분은 이 위기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거나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소위 선진국에 사는 이들이 - 우리도 여기에 포함되겠지요 - 자국의 경제성장과 더 편한 삶을 위해 뿜어낸 온실가스와 야기해온 생태계 파괴

로 인해 가난한 나라의 가난하고 약한 이들이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가난한 이들이 기본 권리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 더 자주 살피고, 그 권리를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고, 필요할 때 연대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이미 앞장서고 있는 교회 안팎의 단체에서 봉사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국내의 가난한 이들을 위한 여러 지원을 아끼워하지 말고, 세계 곳곳의 가난한 이들을 돕는 다양한 사업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론을 형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늘어날 난민들을 이 땅에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필요한 제도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예수성심성월을 보내는 우리는 공동의 집 지구를 돌보는 일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 하고 최후의 심판 이야기를 통해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과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잊지 않고자 합니다. 공동의 집 지구의 파괴로 가장 크게 고통받는 가난한 이들과 약자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과 하느님 사랑이라는 가장 중요한 계명을 지키는 일임을 기억합시다.

영화 '파이브 피트(Five Feet Apart)'

# 악수하고 포옹합시다!

이대현 요나 | 국민대 겸임교수, 영화평론가

다른 사람과 몸이 닿을까 움츠러드는 접촉 혐오증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고 일시적이지만 그 속에서 조금씩 스며들고 있는 고립과 경계, 불신과 배척이 진짜 '사회적 거리'를 얼마나 더 멀게 만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물리적 거리는 멀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위기를 통해 우리는 당연하게 여겼던 악수와 포옹, 입맞춤과 같은 사람들 사이의 물리적 접촉이 얼마나 간절하고 소중한지 깨닫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터넷으로 만나고 이야기해도 따뜻한 손길과 체온만큼 서로를 가깝게 하는 것도 없으니까요.

《파이브 피트》에서 낭포성 섬유증을 앓고 있는 스텔라(헤일리 루 리차드슨 분)와 B.세파시아에 감염된 월(윌 스포츠 분)은 온갖 안전장치를 동원해 감염 예방의 물리적 거리인 6피트를 5피트로 줄입니다. 그럴수록 더욱 사랑의 느낌을 몸으로 확인하고 싶은 두 사람은 죽음을 각오하고 손을 잡고, 포옹하고, 월은 호수에 빠진 스텔라를 살리기 위해 인공호흡까지 시도합니다. 철없는 아이들의 무모하고 어리석은 선택, 어차피 시한부 생명이니 죽기 전 마지막 소원으로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을 통해 《파이브 피트》는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을 잔뜩 움츠린 우리에게 '따뜻한 작은 손길, 불에 닿는 입술의 촉감이 기쁠 때는 하나로, 두려울 때는 용기로, 열정의 순간에는 짜릿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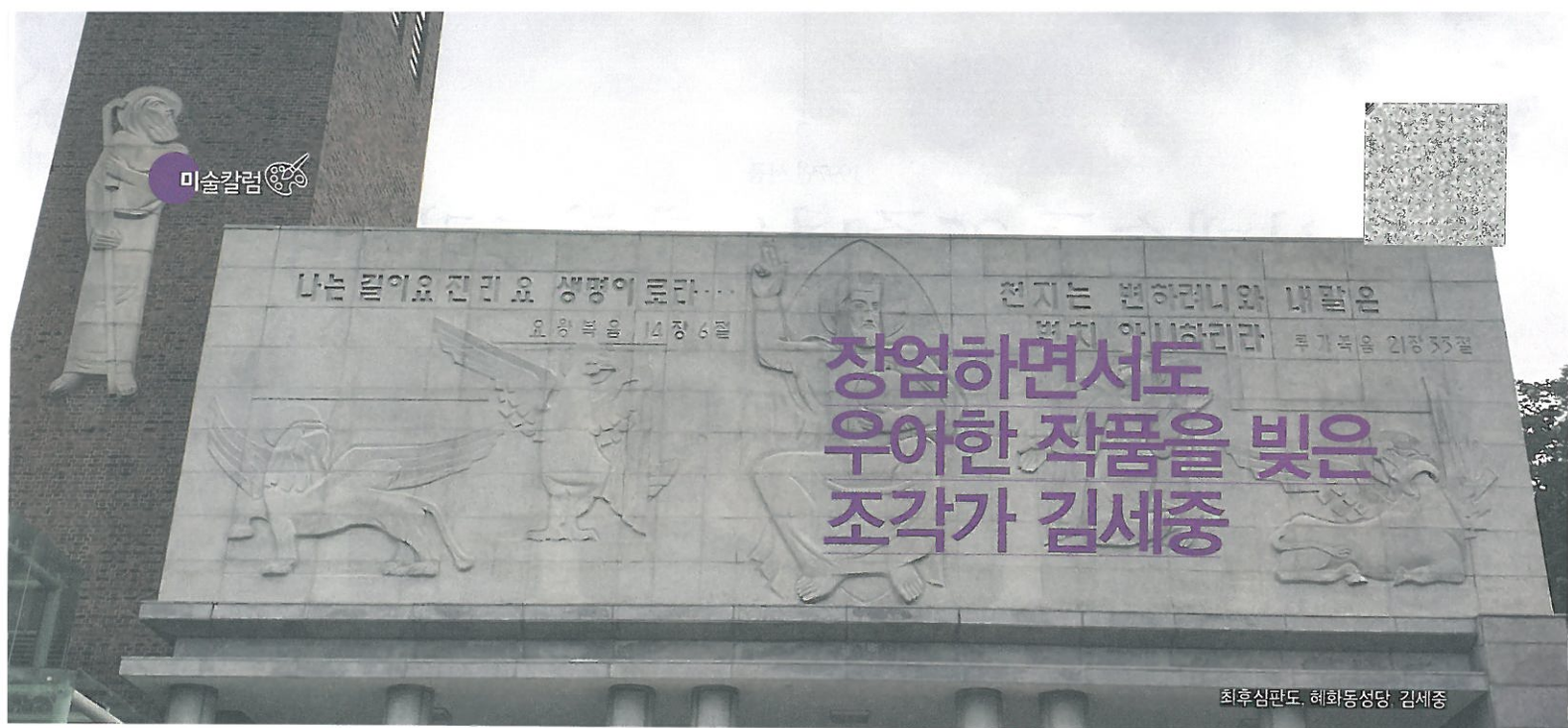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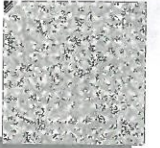
"스킨십. 우리에게서 공기만큼이나 그 손길이 필요하다는 걸 미처 몰랐습니다. 그 손길이 간절해지기 전까지는, 만지세요, 옆의 그 사람을. 인생은 낭비하기에 짧아요." 스텔라와 월의 말입니다. 비틀스의 존 레논도 '사랑은 포옹, 포옹은 사랑(Love is touch, Touch is love)'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란 말이 자연스럽습니다. 정부도, 언론도,

전문가도, 사람들도 코로나19의 감염과 확산을 막기 위해 ‘한 공간에서 서로 일정하게 물리적 거리를 둔다.’는 뜻으로 말합니다. 신조어는 그렇게 일상어가 되고, 표준어가 됩니다. 그래도 ‘사회적’이라는 말이 가진 다의성(多義性), 언어가 사고와 의식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여전히 꺼림칙합니다. 인간이 ‘사회적’인 이유는 같은 공간에 어울려 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회에는 물리적 공간과 함께 심리적, 감정적, 의식적 공간도 있습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는 ‘사회적’이란 기호(언어)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924년 미국 사회학자 로버트 파크도 ‘사회적 거리 (social distancing)’를 개인과 개인, 집단 간의 관계를 특징짓는 친밀도의 개념에서 처음 사용했습니다. 물리적 거리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때문에 사회적 거리는 개인은 물론 인종, 계급, 국가, 성별, 세대 간에도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코로나19로 어쩔 수 없이 물리적 거리 두기를 해야 하는 지금에는 더욱 그래야 할지 모릅니다. **생명의 터전인 지구의 생존을 위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대로 인간들 사이에서만이 아닌 인간과 자연, 인간과 다른 동물의 '사회적 거리'까지 좁혀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만나기를 피하고, 마스크로 입을 가린 채 말하지 않고, 손잡기를 주저하는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서로 얼싸안는 것조차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정웅모 에밀리오 신부 | 서울대교구 성미술 담당

우리 교회에는 많은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능을 살려 작품을 제작하며 성미술 발전에 공헌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예술가들은 교구별로 가톨릭미술가회를 만들어 교류하면서 교회 미술의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서울가톨릭미술가회 창립 50주년(1970년~2020년)을 맞았습니다. 한국가톨릭미술 50주년을 맞이까지 여러 예술가들이 교회 미술의 초석을 놓았고 헌신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김세중(프란치스코, 1928년~1986년)조각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가톨릭미술가회 초대 회장 이순석(바오로, 1905년~1986년) 조각가에 이어서 2대 회장을 맡아 봉사했습니다.

김세중 조각가는 30여 년 동안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 재직하면서 우리나라 곳곳에 많은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공공 조각 작품으로는 광화문 광장에 우뚝 서 있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상>(1968년), 어린이 대공원 분수대 조각(1971년), 국회의사당 정원에 있는 <평화와 변영의 상>(1978년) 등이 있습니다. 그의 조각품은 장엄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을 줍니다.

작가는 일반 작품과 함께 교회 조각품도 다수 만들었습니다. 성미술품 가운데서 규모가 가장 큰 것은 헤

화동성당 입구 사각 벽(파사드)에 있는 <최후의 심판도>(1955년)입니다. 그는 이 작품을 장발(루도비코, 1901년~2001년) 교수의 지도를 받으며 다른 작가들과 함께 제작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성당에 <예수상>과 <십자고상>, <성모상>과 <성모자상>,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상>, <성 김효주 아녜스와 김효임 콜롬바상> 등을 만들었습니다. 작가는 성스럽고 친근한 성상을 만들어 사람들이 신앙의 세계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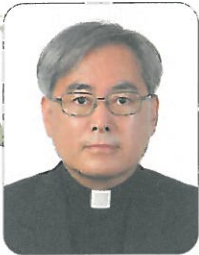


예수성심상, 불광동성당, 김세중

서울대교구의 헤화동성당, 불광동성당, 반포성당, 서교동성당, 세종로성당, 명일동성당, 청파동성당, 흑석동성당, 도림동성당, 절두산 순교성지, 성심여고, 구)계성여고에서 김세중 조각가의 성미술품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작가의 집터에 세워진 '김세중미술관'(청파동 소재)에도 몇 작품이 상설 전시 중입니다.

1997년 서품

# 사제수품 2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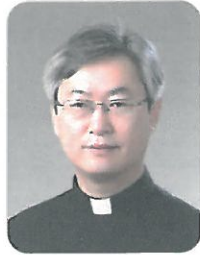
김현규(리노) 신부

"형제들에게 힘이 되어다오."  
(루카 22,32)



이계천(세레자요한) 신부

"아버지, 제 청을 들어주셔서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요한 11,41)



원성목(시몬) 신부

"야훼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시편 118,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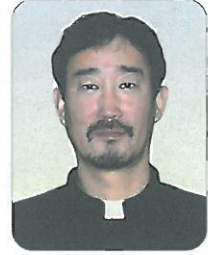
전기석(대건안드레아) 신부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제 믿음이 부족하다면 도와주십시오."  
(마르 9,24)



최대식(요셉) 신부

"내가 네 힘이 되어주겠다."  
(탈출 3,12)



황웅천(스테파노) 신부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었으로 주님께 감사오리, 구원의 잔 받들고서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시편 116,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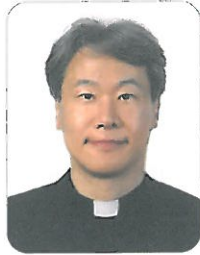
고형석(스테파노) 신부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필리 1,21)



양주열(베드로) 신부

"자, 일어나 가자!"  
(요한 14,31)



황영욱(루카) 신부

"주님, 당신 빛으로 빛을 보옵나이다."  
(시편 3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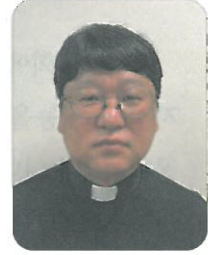
하상진(세레자요한) 신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세운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내가 언제까지나 썩지 않을 열매를 맺어라."  
(요한 1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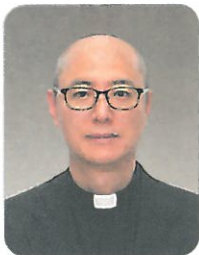
이용현(알베르토) 신부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루카 23,46)



정현영(요셉) 신부

"야훼여, 저는 어수룩하게도 주님의 품에 넘어갔습니다."  
(예레 20,7)



이철(니콜라오) 신부

"나는 주님께 노래하리라, 내가 사는 한, 나의 하나님께 찬미 노래 부르리라, 내가 있는 한."  
(시편 104,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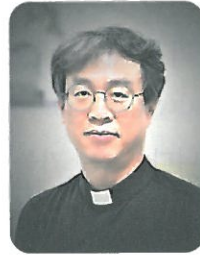
김병훈(알렉시오) 신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 8,32)



전대규(아고보) 신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 같이 사랑하여라."  
(마르 12,30)



박기석(사도요한) 신부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답니까?"  
(요한 18,17)



김영철(시메온) 신부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필리 3,14)



김환수(카비노) 신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갈라 2,20)

## 제28회 사제 성화의 날 및 사제수품 25주년(은경축) 행사

6월 24일(금) 10시 30분~16시, 주교좌 명동대성당

※ 사제 은경 축하 미사(14시 30분)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인 6월 24일(금)에는 '제28회 사제 성화의 날'입니다. 올해 '사제 성화의 날'은 교구 사제단이 함께 모여 사제의 직무와 생활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또한 1997년에 사제로 서품되어 25년 동안 착한 목자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오신 열여덟 분의 신부님들을 위해 교구장님과 교구 사제단이 함께 은경 축하 미사를 봉헌합니다.

'사제 성화의 날' 내용: 시작기도, 교구장 강의(교구장님과의 시간), 낮기도, 중식, 개인 묵상 및 고해성사, 강의 2(시노드 교구단체 종합 보고)

이날(6월 24일) 각 본당의 오전 10시 미사는 취소하시고, 모든 신부님께서는 이 행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부님들께서는 장백의와 백색 영대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6월 19일)은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성체성사의 신비를 기리는 날입니다.

**6월 23일(목)은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입니다**

**2022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행사**

6월 25일(토)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한국 교회의 고유 전례력에 따라 각 본당에서는 6월 25일(토)에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를 봉헌하고, 그 전 주일인 오늘(6월 19일) 교중 미사에 본 미사를 봉헌하여 북한 형제를 위한 나눔에 적극 동참 해주시기 바랍니다. (2차 헌금)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담화문은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교회메시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향: 묵상 자료는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홈페이지(<http://hwahai.cbck.or.kr>)에서 다운로드

**6월 29일(수)은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입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50년 6월 24일 윤의병 바오로 신부(60세)
- 1950년 6월 25일 김경민 루도비코 신부(48세)
- 1978년 6월 21일 서우석 요한 신부(44세)
- 1984년 6월 25일 노기남 바오로 대주교(82세)

\*1950년 6월 선종하신 신부님들은 근현대 신앙의 증인들로 한국 전쟁 중 순교한 분들입니다.



**시노드 교구단계 종합문서**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 ‘서울대교구 종합문서’가 마련되었습니다. 교구시노드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교구정알림**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때, 곳: 6월20일(월) 10시30분, 광장동성당  
문의: 02)921-5094, 010-3732-5093

**2023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신입생 모집**

사제지망 일반예신 학생 및 체계적인 신학 공부를 희망하는 수도자, 남녀 평신도를 모집합니다  
지원자격: 고교졸업(예정)자, 대학수료자, 수도자, 만학도(1968년 2월29일 이전 출생)  
원서접수: 9월13일(화)~17일(토) 인터넷 접수  
면접평가: 11월4일(금) / 문의: 02)740-9704, 9705  
홈페이지: <https://songsin.catholic.ac.kr>

**예수성심대축일 청년 하쿠나성시간**

주교님과 함께하는 청년 하쿠나 성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주례: 유경춘 주교  
때, 곳: 예수성심대축일 6월24일(금) 19시30분, 청년문화공간JU 동교동 5층 니콜라오희(전철 2호선 홍대입구역 2번 출구)  
문의: 02)777-8249(sfcs@sfcs.or.kr) 청소년국 대학교 사목부 / 청년들을 위한 하쿠나 성시간은 매월 두번째(금) · 네번째(금)에 진행합니다

**사목국 직장사목팀 금요미사 및 AESTUS CHOIR 단원 모집**

1) 명동 직장인 금요미사 안내  
때: 매주(금) 12시15분  
곳: 명동대성당 코스트홀 2층 소성당  
문의: 02)727-2078 직장사목팀  
2) 직장사목팀 성가단 AESTUS CHOIR 단원 모집  
대상: 20~40대 직장인 가톨릭신자  
모집인원: 각 파트 00명  
연습 · 미사: 매주(금) 19시30분 · 둘째주(금) 20시, 명동대성당 코스트홀 2층 소성당  
문의: 010-5203-4355 단장, 010-5104-5644 부단장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 없음)  
때, 곳: 7월7일(목) 오후 2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집전: 김재원 신부(대만 선교)  
문의: 02)727-2407, 2409

**2022년도 후기 ‘인재양성기금’ 수혜자 공모**

공모부문: 대학원 학비 장학금 지원, 학위논문 작성비 지원, 국내 · 외 단기연수 및 국제학술대회 참가비 지원 / 홈페이지([www.forlife.or.kr](http://www.forlife.or.kr)) 참조  
접수기간: 6월30일까지 이메일 접수 후 원본 우편 접수(마감당일 우편소인 유효)  
문의: 02)727-2352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서울대교구 온라인 예비신자교리**

대상: 본당에서 부득이하게 정규 예비 신자 교리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성인, 본 교육은 서울대교구 본당에 한함, 본당신부님 승인 필수  
강의: 6개월(온라인 교리) / 회비: 1만5천원  
신청: 매달 1일 개강, 매달 20일 신청마감, 본당 사무실에서 신청 / 문의: 02)727-2069 사목국 교육지원팀  
자세한사항은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http://www.samok.or.kr)) ‘온라인 예비 신자 교리’ 참조

**시복시성기원미사 및 합창단원 모집**

1) 시복시성 기원미사  
이달의 하느님의 종 ‘김면호 토마스’  
때: 매달 셋째주(화) 6월21일 오전 10시(175회)  
곳: 절두산 순교성지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2) 순교자현양회 합창 단원모집  
연습: 매주(월) 오후 7시,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대상: 음악을 좋아하는 교우, 성가대 및 합창단 유경험자(62세 이하)  
활동: 순교자현양회 시복시성기원 미사(월 2회), 행사 성가봉사, 정기연주회 등  
문의: 010-3898-3408 단장, 02)727-2527 사무국

**갤러리1898 전시안내 / 문의: 02)727-2336**

조숙의 개인전: 전관  
전시일정: 6월22일(수)~27일(월)

**서울대교구 화상수업**

주제: 자존감 되찾기 / 교육 지도: 문종원 신부  
때: 6월24일~9월23일 매주(금) 오후 8시~9시  
문의: 010-6224-2920 강명인

**민족화해위원회**

1)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 마음의 북녘 본당 갖기 미사)  
때, 곳: 1323차 미사 6월21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주기억할본당: 서울대교구 연안 본당, 개성 본당  
미사후에는 한반도 평화와 북녘본당을 위한 묵주기도를 봉헌합니다 / 문의: 02)727-2420  
2) 2022 평화의 바람(독도 & DMZ국제청년평화순례) 참가자 모집  
대상: 평화에 관심 있는 20세~30세 내 · 외국인 젊은이 60명(영어 가능자 우대) / 문의: 02)753-0815  
때, 곳: 8월16일~22일, 독도&경기 · 강원 DMZ일대  
회비: 10만원 / 6월26일까지 이메일 접수  
홈페이지(<http://caminjok.or.kr>) 참조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1) 2022년 영성심리상담교육원 교육프로그램  
모집과정: 온라인-2022년 영성심리 아카데미(영성심리특강, 기도동반, 영성심리독서모임, 피정 등), 대면-가톨릭영성심리 치유와 봉사 수료과정(기본과정) 상세안내 홈페이지 참조 / 02)727-2126(tcpc@seoul.catholic.kr)  
신청: 홈페이지(<http://seoultcpc.catholic.or.kr>) - 교육신청  
2)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진로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명동),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 02)727-2139(월~금 10시~18시) /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 인준단체 알림

### 모임

####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 평화의 모후 청년 셀 모임(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대상: 미혼 / 문의: 02)756-3473, 010-7510-4820  
때, 곳: 매주(금) 19시30분, 가톨릭회관 516호

#### 젊은이 여름 쉼 피정

때: 8월13일(토)~15일(월) 2박3일 / 회비: 6만원  
곳: 라베르나 기도의 집(평창) / 대상: 35세 이하 미혼 여성  
문의: 010-5715-1702 아씨의 프란치스코 전교 수녀회

#### 성모승천수도회 십자가 도보 성지순례

때, 곳: 7월16일(토), 산막골-도양골 성지(대전교구)  
출발: 7시30분, 전철 2·4호선 사당역 공영주차장  
문의: 010-3080-9104 / 사전접수 필수

#### 수도 전통에 따른 렉시오 디비나 입문 피정

때, 곳: 8월4일(목)~7일(일), 수리치골 성모성심의집  
지도: 허성준 신부 외 / 인원: 32명(1인실)  
회비: 35만원 / 문의(접수): 010-8599-3127 한릿다  
주최: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자연순례(우도자유일정): 7월21일~23일, 7월30일~8월2일, 8월6일~9일, 8월12일~15일, 8월20일~22일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피정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쉼과 재충전의 시간  
대상: 개인, 가족, 일행, 분당 단체 구반장  
때: 6월27일~29일, 7월3일~5일, 7월8일~10일, 7월23일~25일, 7월31일~8월2일, 8월6일~9일  
문의(접수): 02)773-1455, 064)796-4182

#### 성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 문의: 010-3340-0201

성경 원독	7월8일(금)~16일(토)	곳	도미니코 피정의 집(주최, 회성)
효소단식	7월21일(목)~24일(일)		

### 교육

#### 새천년복음화학교 1단계 147기 개강

때: 7월4일(월) 10시·7월7일(목) 19시 / 회비: 7만원  
문의: 02)753-8765, 010-8931-8765

#### 미사반주법 및 묵상곡을 위한 오르간 교육

때: 7월4일부터 (월)~(토) 10주  
주최: 아퀴나스오르간연구소 / 문의: 02)338-3793

#### 어르신 선종 교육 '죽음-웰다잉(선종) 강의·미사

때: 6월28일(화) 10시~13시 / 문의(접수): 02)766-7370  
곳: 노인복지위원회 성모노인센터(주최, 종로3가창덕궁 앞)

####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수강생 모집

대상: 성경공부를 원하는 모든 분  
성직자, 수도자, 장애인 50%할인(전화 필수)  
문의: 031)360-7635, 010-7470-7966

#### 가톨릭여성연합회 원어민 영어회화 초급반 모집

때: 매주(금) 10시~12시(주1회, 2시간)  
곳: 가톨릭회관(명동) 513호 / 문의: 02)778-7543  
회비: 3개월 12만원(원회비 별도)

#### 서강대 게임·평생교육원 여름학기 학점은행제 수강생 모집 / 문의: 02)705-8718

심리학, 경영학, 사회복지학 전공  
개강: 7월1일(금) / 홈페이지: <https://scec.sogang.ac.kr>

#### 대안교육 산자연중학교 전입학설명회·여름진학캠프

대상: 현 초6, 중2 / 문의: 054)338-0530

전입학설명회	7월2일(토) 14시
여름진학캠프	8월6일(토)~7일(일)

#### 미국가톨릭사립학교 학생 모집

문의: 02)2258-8983(oakinternational.co.kr)  
주최: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운영 학교법인

정규입학	초5~고1 / 단기 1년 또는 장기
여름캠프	초4~중2 / 미국 4주·캐나다 2주

#### 예수회센터 여름방학 특강(7월 개강·각 6주 과정)

이 밖의 다양한 강좌에 관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s.kr>)

사랑의 법, 영혼의 법-하느님의 사랑, 성사	현장 강의: (월) 10시~12시	이혼 신부
목양, 심리적 돌봄과 영적 성장의 문(門)	동영상 녹화 강의: 링크 발송	유성모 신부
가톨릭 사회교리의 원리와 핵심 이슈들	현장 강의: (목) 10시~12시	전주희 수사
	동영상 녹화 강의: 링크 발송	

### 미사

#### 살레시오와 꿈 월레미사

지도: 심재현 신부 / 문의: 02)828-3500  
때, 곳: 6월27일(월) 11시, 살레시오회 관구관 4층

####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월레미사

때, 곳: 6월20일(월) 14시~15시30분, 가톨릭회관 205-2 / 내용: 고해성사, 미사, 성체조배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 천주교서울국제선교회 월레미사

중남미 선교와 사제양성을 위한 후원미사입니다  
집전: 송영호 신부 / 문의: 02)749-4596  
때, 곳: 6월27일(월) 14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 평양교구 신우회 미사 / 문의: 02)727-2056

때, 곳: 6월22일 11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 성서가족 열린미사(역삼동성당)

청년성서모임 40대, 50대 성서가족들이 흥인식 신부와 함께하는 찬양미사 / 문의: 010-5229-9425  
때: 매일 넷째주(일) 6월26일  
곳: 역삼동성당 및 온라인 / 유튜브 '열린미사' 검색

#### 생명이신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곳: 도미니코 수도회(주최, 강북구 수유동)

성체미사	매주(수) 19시30분	문의:
성토마스 성체신심회	넷째주(토) 10시	010-5818-8431

#### 가정선교회 7월 행사

미사, 식수준비, 방역수칙 준수 / 문의: 010-6281-8626, 010-5674-8511, 010-2367-2297, 02)777-1773 대표

첫 토 성도 신심미사	7월2일 13시~17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한철호 신부, 이현주 회장
성가정 영성 1일 피정	7월6일 9시30분~16시30분, 가톨릭회관 1층 강당 / 홍성남 신부, 이현주 회장

### 인사

#### 중립동약현성당 2023년 1월~3월 혼인 예식 추천

추천: 7월3일 오후 3시 / 문의: 02)362-1891  
준비물: 교적 사본, 예약금 60만원 / 주의사항-2023년 4월~12월 예약은 10월 중에 추첨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당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중독 중점치료(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 (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http://www.karf.co.kr)

####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26-0700

곳: 명동 / 홈페이지: [www.jiscen.or.kr](http://www.jiscen.or.kr)  
전문심리상담: 개인상담-정서불안·우울·분노·성격 등의 어려움, 부부 및 가족상담-부부갈등·의사소통의 어려움·자녀문제로 인한 갈등, 스트레스-직장 내 어려움·대인관계

####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ein.com>) 토요상담 가능  
개인심리치료: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등  
가족심리치료: 부부, 가족(자녀)간의 갈등, 행동문제, 대인관계

### 직원모집

####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 문의: 010-3040-7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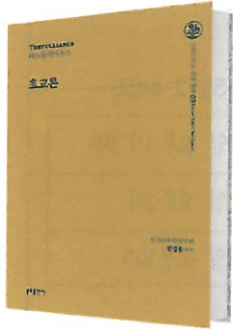
요양보호사 / 주 40시간 3교대, 기숙사 가능

#### 서울삼심간병인회 남녀 간병사 수시 모집

곳: 서울삼성, 서울성모, 여의도성모, 은평성모병원  
근무내용: 환자에게 간병 제공(24시간 병원상주) / 1522-9415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도미니코 수도회	수시	수도원(강북구 삼양로139나길 16-8)	010-3012-2616 조성하 신부
살레시오회	매월 네번째(토) 14시	수도원(대림동)	010-2042-8353 심재현 신부
성 베네딕도회 요셉 수도원	수시	본원(경기도 남양주시)	010-4241-1210 성소 담당자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6월26일(일) 9시	서울 본원(장충동)	010-8353-2323
성체선교콜라라수녀회	수시	본원(대전)	010-8683-6848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봉쇄 수녀회	수시	수녀원(청주)	043)295-5940(cumjesupassio@gmail.com)
작은예수수녀회	수시	수녀원(군자동)	010-8939-7970
천주교서울국제선교회	수시	신학원(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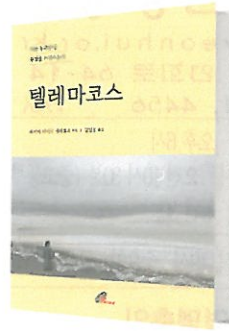
서울주보 '알림' 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신간  
**호교론**

테르툴리아누스 지음  
본도출판사 | 288쪽 | 2만3천원  
문의: 02)2266-3605

테르툴리아누스는 최초의 라틴 교부이며 로마법에 능통했던 호교론자였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증오로 시작된 로마인들의 근거 없는 고소, 고발과 불합리한 재판 과정의 부당함에 대해 법적,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차원에서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한다.



신간  
**텔레마코스**

루이지 마리아 에피코코 지음  
바오로딸 | 240쪽 | 1만4천원  
문의: 02)944-09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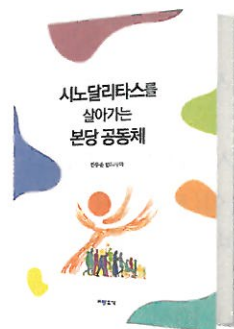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텔레마코스의 이야기를 모티브 삼아, 성경 인물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들을 중심으로 다루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관해 성찰하도록 초대한다. 인간을 향한 긍정적 시선을 바탕으로 관계 안에서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며 자유로워지도록 인도한다.



신간  
기록함으로의 초대 4  
**구원으로의 부르심과  
응답**

김동규 지음  
기쁜소식 | 124쪽 | 8천원  
문의: 02)762-1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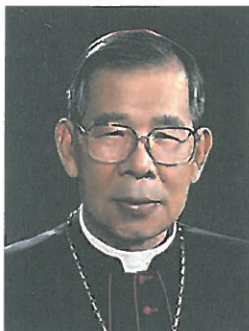
하느님께서 초대하시는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것은 자유의지를 지닌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 책은 신앙과 율법의 근간을 마련한 모세와 노아의 삶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 식으로 펴낸 것이다. 신자들이 성경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 좋은 안내서가 될 것이다.



신간  
**시노달리타스를  
살아가는 본당 공동체**

안동훈 지음  
기쁜소식 | 116쪽 | 6천5백원  
문의: 02)762-1194

시노달리타스에 대한 일반적인 신학적 지식이 아니라 본당 공동체라는 고유하고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시노달리타스를 살아가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본당 공동체에서 구체적으로 살아가고 활동하는 방식으로써 시노달리타스를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연극  
탄생 100주년 기념 연극  
**추기경, 김수환**

입장권: S석 3만원, A석 1만5천원, 단체(20인 이상) 1만원 / 문의: 02)3789-7702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호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지참시 주보 1부로 5명 20% 할인(10세 이상 관람 가능 / 10세~19세 1만원으로 청소년 할인)

1922년 순교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의 어린 시절부터 선종까지의 일대기를 그린 연극 <추기경, 김수환>은 김수환 추기경의 삶을 조명하고, 종교와 시대를 초월한 참삶의 길에 대한 고인의 뜻을 기려 현대인들과 공감을 나누고자 하는 바람으로 기획됐다.(공연일정: 7월 1일~10일, 서강대메리홀 | 7월 14일~15일, 대구 드림즈홀 | 7월 17일, 포항 요안나홀 | 7월 24일, 안동 문화예술의전당)



뮤지컬  
**동백꽃 피는 날**

입장권: R석 6만5천원, S석 5만5천원  
문의: 02)568-4143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호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지참시 주보 1부로 4명 30% 할인

뮤지컬 <동백꽃 피는 날>이 6월 7일~7월 6일까지 대학로 SH아트홀에서 공연된다. 제주 북촌을 배경으로 새로운 향구와 대단위 리조트를 개발하려는 사람들과 이를 반대하는 분임 할망의 이야기로, 분임 할망의 삶을 통해 지난 과거의 아픔과 삶의 의미를 되새긴다. 개발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옛 추억을 지키려는 사람들 간의 갈등 속에서 트라우마를 안고 사는 할머니의 애환을 담고 있다.

제2234(성 바오로 사도 회심 축일)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보좌신부 : 이철규(아우구스티노)

안령회장 : 지병국(바오로) 010-5512-4450

주일 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li> <li>주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li> </ul>	유 아 세 례	홀수 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혼 인 면 담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li> </ul>	성모신심미사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류시창 베드로 주임신부님 영명축일

축하식 : 6월 26일(주일) 11시 미사  
 ※ 신부님께 하느님의 은총이 늘 충만하도록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전 9시, 11시 미사 후 전신자 음식나눔 잔치가 있습니다.

◎ 예비신자는 7월 10일(주일)까지 모집합니다.

교리반	교리 시작 날짜	장소
수요반	6월 8일(수) 오후 8시~	교육관
주일반	6월 12일(주일) 오전 9시~	304호

◎ 남성을드레아

일시 : 6월 19일(주일) 교중미사 후 301호

◎ ME 월례회의

일시 : 6월 19일(주일) 오후 5시 30분 / 304호

◎ 성소후원회 미사 : 6월 21일(화) 오전 10시

※ 성소후원회 회원분들 회비는 사무실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 병자영성체 : 6월 23일(목) 10시 미사 후

◎ 6월 24일(금)은 사제 성화의 날입니다. 신부님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교구행사로 6월 24일(금) 오전 10시 미사는 없습니다.

◎ 예수성심성월 맞이 청년 활동

- 6월 26일(주일) 성체조배, 청년미사 후 대성전

◎ 봉헌컵초·기도초 가격 인상 건

‘전년도부터 초의 주요 원료인 왁스가 국제적으로 폭등하였고, 친환경 원료인 팜 오일이 인도네시아에서 수출 금지되는 사태로 가격이 폭등하여 부득이하게 가격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가톨릭출판사 사장 김대영 신부-

※ 시행일자 : 7월 1일(금)부터

큰컵초 : 판매가 2,000원 → 3,000원

작은컵초 : 판매가 1,000원 → 2,000원

기도초(대) : 판매가 3,200원 → 3,500원

기도초(소) : 판매가 1,700원 → 2,000원

◎ 성물방 봉사자 모집

문의 : 효주아네스 대표 (010-6355-8987)

◎ 여성을드레아

일시 : 6월 28일(화) 오전 10시미사 후 304호

◎ 반디주일학교 여름캠프 봉사자 모집

캠프 장소 : 산천가든 유원지

캠프 기간 : 7월 16일(토)~7월 17일(주일)

※ 1박 2일로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문의 : 사무엘 교감 (010-5091-1509)

◎ 오늘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2. 6. 12)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1년 책정율	2021년 납부율
2,098	806 (38.4%)	756 (36.0%)	43.8%	42.5%

교무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	---------------

※ 교무금 자동이체 신청해서 납부 바랍니다.

※ 교무금은 반드시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당유지보수기금 (2022년)

누 계 ..... 36,140,600원

◎ 감사헌금 (6월 6일~12일)

익 명 .....삼십만원 이회정 .....일십만원

유영애 .....이십만원 김영숙 .....오만원

박명숙 .....오만원 김은순 .....오만원

오하나 .....이십만원 김재균 .....오만원

최재상 .....이십만원 이경구 .....이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삼위일체 대축일)

교무금 ..... 6,240,000원

주일헌금 ..... 5,120,600원

성당유지보수를 위한 2차헌금 ..... 1,934,500원

입당	169	봉헌	211, 216	성체	162, 182	파견	201
----	-----	----	----------	----	----------	----	-----



멜 키 체 텍 과 같 이 너 는 영 원 한 사 제 로 다